메이저 골프 우승 '대박'? ... 상금 실수령액은?

▲ 제151회 디오픈에서 우승한 브라이언 하먼이 우승 트로피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메이저 골프대회에서 정상에 오르면 '돈벼락' 을 맞는 격이다. 상금이 어마어마하다. 그러나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큰 차이를 보인다. 업청난 세금을 내기 때문이다.

지난 31일 '아시아경제' 에 다르면 지난달 23일 영국 잉글랜드 호이레이크의 로열 리버풀 골프클럽에서 막을 내린 '최고의 메이저' 제151회 디오픈(총상금 1,650만 달러)에서 우승한 브라이언 하먼(미국)의 우승 상금이 이슈가 됐다. 실수령액이 생각보다 적은 까닭이었다.

디오픈의 우승 상금은 지난해보다 50만 달러 증액된 300만 달러였다. 하지만 우승자가 받은 실제 상금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영국의 세법으로 인해 하먼은 120만 달러를 가져갔다.

영국은 우승 상금 300만 달러에 관한 기본 소득세가 20%다. 여기에 수입이 15만 파운드를 초과하면 최대 4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세율이 존재한다. 우승자가 실제 손에 넣는 금액은 우승 상금의 40%에 불과했다.

미국에서 열리는 다른 메이저 대회도 세금이 만만치 않다. 연방 정부 소득세는 무조건 내야 한다. 최저 10%에서 최고 세율 37%다. 소득 구간에 따라 누진세가 적용된다. 메이저 대회 우승자는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주정부 소득세가 있다. 주별로 다르다. 누진세, 고정세 등을 채택하고 있다.

주정부 소득세가 가장 비싼 곳은 캘리포니아주다. 최대 13.3%다. 하와이주(11%), 뉴저지주(10.75%), 오리건주(9.9%), 미네소타주(9.85%), 컬럼비아주(8.95%), 뉴욕주(8.82%), 애리조나주(8%) 등이 비교적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 노스캐롤라이나주(5.25%), 매사추세츠주와 켄터키주, 뉴햄프셔주(이상 5%) 등은 고정세율이 적용되는 곳이다.

우승자들이 좋아하는 지역도 있다.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워싱턴주, 네바다주, 테네시주, 와이오밍주, 알래스카주, 사우스다코타주 등 8개 주다. 소득세가 없다. 우승 상금 중 연방세만 내면 된다.

전 여성 수영 선수 "생물학적 남자 앞에서 강제로 탈의"

생식기 수술 없이 호르몬 대체 요법(HRT)을 받은 뒤 미국 여성 수영 대회를 휩쓸고 있는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선수 리아 토마스와 함께 훈련한 여성 선수가 성폭력 피해를 호소했다.

1일 '머니투데이' 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대 여성 수영팀 출신으로 현재는 독립여성포럼 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폴라 스캔런은 지난달 27일 하원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열린 '미성년자를 위한 성인지적 치료' 청문회에서 자신이 성폭력 생존자라고 주장했다.

스캔런은 "저와 동료들은 키 193㎝에 생물학적 남성이며 남성 생식기가 완전히 손상되지 않은 토마스 앞에서 일주일에 18번씩 강제로 옷을 벗어야 했다." 라며 "이를 피하기 위해 화장실 칸 안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가족 화장실을 사용하는 여학생들도 있었다." 라고 전했다.

이어 "학교 측은 우리가 남성 앞에서 옷 벗는 것이 익숙해지도록 재교육하기 위한 상담을 제공했다. 학교 측은 우리를 피해자가 아니라 문제로 여겼다. 우리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다." 라고 말했다.

스캔런은 또한 남성 선수들과 경쟁했던 토마스가 호르몬을 주사하고 여성 선수들과 경쟁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나는 선수 시절 매주 20시간 이상 훈련했지만 생물학적 남성은 제칠 수 없었다." 라며 "토마스는 남성 대회에서 전국 500위권 선수였지만 여자 경기에서는 전미대학체육협회(NCAA) 챔피언이 됐다. 여성들은 시상대에 설 자리를 잃었다." 라고 토로했다.

▲ 트랜스젠더 수영 선수 리아 토마스. 사진=firstsportz.com

리아 토마스는 2019년 성전환을 시작해 2021년 여자팀에 합류하기 전까지 남자부에 참가했다. 그는 남자 선수일 때는 크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다가 2021년부터 여자 대회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어 공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3월 500야드(457m) 자유형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미국 역사상 최초로 NCAA에서 우승한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가 됐다.

청국장 명가
구수한 향과 깊은 맛을 느껴보세요!
더부러
여름 스페셜
시원한 맛과 고소한 향이 일품인 콩국수!

홍어조림

치킨

골뱅이무침

오징어 철판볶음

천엽무침

해물파전
런치 스페셜
12.99 (Weekdays)
비빔국수/쫄면/칼국수
수제비/오징어덮밥/청국장
김치 or 해물볶음밥/콩국수
오므라이스/돈까스정식
술과 함께 즐기세요~

더부러 Double O | 909.597.3320
20627 Golden Springs Dr #1K, Diamond Bar, CA 91789